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h1 style="margin: 0;">새고려신문</h1> </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월 11일(금) ..(음력 12월 6일).. Пятница 11 января 2019г. № 1(11681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쿠릴열도, <아시아 아이들>동계스포츠대회 성화 봉송 진행

사할린에 도착한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의 성화가 새해 첫 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새해맞이 행사장인 레닌광장에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에게 전달되었다. 성화 봉송은 1월 7일부터 쿠릴열도에서부터 시작했다. 먼저 쿠나쉬르섬 유즈노쿠릴스크에서 12명, 쉬코탄 섬에서 8명이 봉송 릴레이에 참가했다. 9일 이투루프섬 쿠릴스크시에서 이어진 봉송에는 11명이 참가했다. 쿠릴스크 봉송자 중 최연소 참가자는 16세, 최고령 참가자는 72세였다고 전해졌다.

12일(수) 봉송은 파라무쉬르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할린에 다시 돌아온 성화는 북부 오히시부터 시작하여 봉송이 이뤄지는데 이에 총 370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이들은 총 4122 킬로미터를 달리며 봉송하게 된다.

첫 <아시아 아이들> 유·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는 2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쿠릴스크의 봉송자들.

(<아시아 아이들>대회 본부 홍보실 제공)

단신

<로스넬치>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 인상

사할린 <로스넬치-위스토크넬체프로독트>회사의 주유소에서 1월 9일부터 모든 종류의 연료 가격이 상승했다. 올해부터 러시아에서 부가세 인상으로 새해 연휴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을 공시했다. 이에 1월 1일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올라가 소매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번에 휘발유 가격이 적잖이 올랐다. АИ-92는 70코페이카, АИ-95는 75코페이카, АИ-98, 디젤은 1리터당 80코페이카로 상승했다.

이리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시에는 디젤은 1리터당 가격이 50,7루블리, АИ-92 — 43,80루블리, АИ-95 — 45,35루블리, 그리고 АИ-98는 49,40루블리다.

<투나이차>의 연어알 우수 품질의 제품 인정

러시아 품질감독청이 <투나이차>사할린 유한책임회사가 생산하는 연어알 통조림을 우수 품질의 상품으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이 새해 전야에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섬지역 제품이 <글로벌스>와 <아주 건강에 좋다>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품들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 <투나이차>의 연어알은 최우수점수인 5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새해연휴, 화재 64번 기록

이번 새해 연휴(1월 1일-8일)기간에 사할린주에서 64번의 화재가 나 5명이 부상을 입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비상사태성 사할린주관리국 이리나 킬나야 부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해 연휴 화재들의 주요 원인은 전자장비 사용의 위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월 13일은 러시아 출판절

친애하는 여러분!

'러시아 출판일'을 맞아 대중 정보 매체들의 원로 언론인들과 촉탁 전문가들, 활동 중인 사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703년에 첫 러시아어 신문인 <웨도모스키> 1호가 발간된 이래 우리나라의 생활 속에 언론매체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오늘날에는 실로 '네 번째 권력'이라 정의할만 합니다.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해 최신 전자정보 제공 덕분에 러시아와 극동 및 사할린주 주민들은 최신 소식을 알게 되고 주요 사건의 경과를 접하며 많은 유용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중요한 문제에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며 국내 사회·정치적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섬 특성상 언론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론 매체들은 '큰 대륙'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정보의 다리이며 사회와 정부 간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고, 사할린과 쿠릴섬들의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대중 정보 매체들은 양적인 면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적 장비들을 갖추고 새로운 사원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할린주 정부 전권의 일환으로 이에 필요한 지원과 원조를 지속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복과 새로운 창작 성취를 기원합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올해 상수도관 시설 21개 대상 개건 예정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새해에도 사할린주 내 지방 상하수도기관에 대규모 상수도시설 개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표명했다.

사할린에 <깨끗한 물>기획 실시로 2019년에는 25억 루블리를 책정했다. 이는 작년(7억4500만루블리)에 비해 3배 이상이다.

올해는 지방 구역들에서 상수도과 하수처리 문제를 개선시킬 21대상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건할 예정이다.

아니와시의 동부에서는 부분적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둘째 중앙수도관을 16킬로미터 연장하여 도시주변의 상수도시설을 개선해 가야 한다.

이로써 안정적인 수압과 개선된 수질의 수도물을 주택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앙상수도시스템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위스크레센스코에 마을과 페스찬스코에 마을에도 들어선다.

홈스크구역 말카강에는 정수장을 건설하고 <말카>배수장에서 홈스크까지의 수도관 건설, 트로이츠코에 마을과 <유즈니>취수장(트로이츠코예촌)에서는 상수도처리장을 개건하고 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구역에 정수장과 펌프관이 건설돼 수원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 주민들은 정상치의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다. 스미르니호부락에서는 상수도시설의 개건을 시작하여 올해 이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사할린주의 시와 지방 구역의 상수도시설에는 152개 펌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지하에 97개, 지상에 55개, 사할린주 상수도관의 총 길이는 2500킬로미터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2018년도 역시 사할린 한인 사회계에 다양하고 중대한 행사가 많은 해였다.

1월 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회 결산회의가 소집. 회의에는 28명 운영위원 중 20명이 참석, 의정에는 2017년 사할린주 한인회 사업 결산 보고와 감사위원회 재정보고, 2018년 주한인회 계획안과 기타 문제가 올라.

1월 18일-21일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즈음하여 한국에서 개최된 '고양U-12세계유소년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서 <크리스탈>사할린 유소년아이스하키팀이 우승을 차지. 승리의 컵과 메달을 두고 한국팀, 일본팀, 중국팀, 아일랜드팀, 캐나다팀과 미국팀들이 접전을 벌임.

1월 24일-31일 - KIN(지구총동포연대)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 대표단은 넬스키, 아니와, 위스토크,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등지를 찾아 동포들을 만나 구술작업을 진행, 현지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 본사 기자도 한국 대표단과 위스토크,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일정을 함께해 취재.

1월 25일 -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소장 김영미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조명희와 선봉, 연해주 한인문단>을 주제로 국제포로키움을 개최. 한국에서 공주대학교,부경대학교 등의 교수들이 사할린을 방문.

1월 30일 -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주문화문서보관부와 블라디보스토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의 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 미술 전람회가 열려. 전람회 개막에는 주블라디보스토크총령사관 조석철 총령사가 참가. 전시회에는 사진, 도서, 수공예 작품과 조개껍질 작품 등 약 100점이 출품.

2월 9일 - 한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사할린에서 많은 응원자들이 동계올림픽을 찾았고 본지에도 올림픽 관람에 대한 소감글이 게재되었다.

2월 9일 - 사할린 주한인회·주노인회·주이산가족협회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체결한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폐지하기로 결정. (관계 단절에 대한 보도가 본지 2018년 8월 3일 호에 게재)

2월 16일 - <사할린 섬> 박물관에서 양 세르게이 소설가·시인 작가가 만남이 있었다.

2월 1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에서 설 행사로 제3회 동양언어축제가 개최. 이에 남부 사할린(아니와,흠스크, 돌린스크구역 포크로브카, 코르사코브,유즈노사할린스크) 13개의 학교 학생 200여 명이 참가.

2월 16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회 주최로 설맞이 행사가 개최. 행사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을 비롯한 지방 한인회장, 주 민족단체장, 후원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 사할린 여러 지방에서도 응력 설맞이 행사 펼쳐짐.

2018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행사·사건·이벤트

2월 18일 - <에트노스>아동 예술학교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공연실에서 <전통으로부터 현대까지> 설 축제 개최.

2월 18일 - 러시아 극동지역을 순회 공연한 러시아 인기 가수 초이(최) 아니다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으로 공연.

2월 24일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류단(교수2명, 학생 10명, 단장 이재혁 학과장)이 사할린을 방문해 문화탐방(체호브의 무한 도전), 사할린의 역사, 사할린 한인 과거·현재·미래로 연구를 하여 사할린국립대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3월 3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소망>아동작가협회·주한인여성회 공동 주최, 주한인회 협조로 국제 여성의 날 기념 <봄날 기분> 명절 행사를 진행.

3월 5일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조성과 남북관계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

3월 18일 - 러시아 대선일. 러시아 대통령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재선.

3월 2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모임에서 림종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과 안영수 시한인회 부회장 겸 노인회장에게 주두마 표창장을 수여.

3월 27일 -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서점에서 허남영 사할린시인의 시집 출판 기념회 개최.

2권으로 된 선집(시, 에세이, 시조 번역본) 소개.

3월 27일 - 이철주 문화기획가(한국)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를 방문하여 삼고무 1세트를 기증.

4월 5일 - 아니와 정부(시장 아르쭈프 라자레브)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협력협약 체결.

4월 12일-1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티몰)에서 한국영화주간이 개최. 사할린출장소협조 아래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의 주최로 진행되어 한국영화 5편 상영. 이 행사로 사할린을 다녀간 주블라디보스토크 이석배 총영사는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과 면담을 하고 사할린 동포와 교민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와 언론간담회를 가짐.

4월 14일-1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몰에서 <건강과 휴식> 한국 관광 소개행사 개최. 주최: 한국관광공사(블라디보스토크 대표부)

4월 18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15차 사할린한인동포단체 대표자 회의(주최: 대한민국적십자사;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사할린한인 단체 대표들 참가) 소집.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들은 일본·한국 정

부에 전달.

4월 20일 - 사할린주정부(교육부)·사할린국립대·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 주최 아래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한민족 운동의 전통>이란 주제로 발표.

4월 20일 -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전통민속놀이>이란 주제로 사할린주 한국학 경시대회 개최. 이 행사는 사할린주 정부, 사할린주 한인회, 사할린국립대가 공동으로 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4월 21일 - 한국 행정안전부 대표단이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한인 1세 유골 봉환·한인 기록물 수집 문제로 주정부 협조 요청.

4월 27일 -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려.

4월 3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문화센터에서 러시아-한국 친선 2018 새 봄맞이 음악회가 열렸다. 국제문화공연교류회(회장 양평수) 주최, 사할린주 필하모니악의 주관. 공연에는 한국 및 사할린 아티스트들이 참여.

5월 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톨리차 비즈니스센터 콩그레스홀에서 사할린 유·청소년오케스트라(단원 70여명, 지휘: 빅토리아 유흐마노와)와 한국 키도(KYDO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31명, 지휘: 고영휘)의 합동공연을 개최.

5월 12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어버이날 행사 진행. 주한인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노년층을 존중하며 삶을 지킵니다>란 기획의 일환으로 실시.

5월 1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교장 위로호와 테.아.) 한민족문화예술과 발표회가 있었음. <진달래>무용단의 졸업 공연.

5월 16일-17일 - 사할린 박알렉세이 보건부 장관 및 4개 병원 원장 및 관계자들이 한양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견학하고 학술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

5월 21일 - 사할린인문기술대학(전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대학)에서 <사할린동포: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회가 진행. 대회는 SSK 이주·사회통합문제연구회, 인하대학교 BK21+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단,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사할린주한인회의 주최로,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의 후원으로 개최.

'사할린 한인들' 주제로 전문 연구자들이 전체 발표하는 학술회가 최근에 사할린에서 없었음.

5월 21일 - 사할린주한인회는 인하대학교 BK21 +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와 협력협

약을 체결. 양측은 사할린 한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비롯해 여러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5월 19일-22일 -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아람지역협의회 대표단 21명이 사할린을 찾아 초·중 학생 사할린여행 사업 추진계획 파악.

5월 2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 강좌(2017년 9월 수업 시작) 수료식 개최. 수강생 133명이 수료증을 받음.

5월 29일-6월 2일 - 한국에서 사할린주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설명회는 2016년 9월 2일에 블라디보스토크 국제동방경제포럼에서 사할린주 정부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간 체결된 양해각서 수행에 따라 이뤄져.

6월 1일 - 새고려신문사 주최 아래 진행된 <한국방문 체험수기>의 수상자 발표·시상식이 개최.

6월 6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3차 <사할린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 설명회>가 진행. 설명회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이 직접 참여. 진료 희망자 31명 중에서 의료원 측은 상담을 통해 26명만 선정

6월 12일 - 조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로 70년간 얼룩진 냉전이 해체되는 사건이 시작.

6월 14일 - 3차 초청진료 프로그램으로 26명의 사할린 한인 1세 한국 방문. (국제보건의료재단 추진)

6월 중순 - 한국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 박봉수 박사를 비롯한 본교 연구원들이 3권의 책을 출간. 두 권의 책에는 사할린 영주귀국자 12명의 생애사가 담겨 있음.

6월 23일 -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협의회 대표단 37명이 사할린을 방문,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한인역사 세미나를 가짐. 한국대표단은 사할린주한인회에 아동 한복 2 벌을 기증.

7월 3일 ~ 17일 -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주관으로 구미시에서 '러시아 사할린 한인교포 4세 초청 모국연수' 진행. 사할린한국교육원이 실시하는 한글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중고교생 위주로 선발(인솔교사 포함 30명)

7월 17일 - 21일간 - 사할린 한인 학생 60명이 <2018 재외동포 학생초청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 방한. 주관: 경기도 학생교육원(인천).

7월 21일 - 마카로브에서 <우리함께> 제5회 민족 간 축제를 개최.

7월 2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메가팔라스호텔 회의실에서 제61차 제주평화통일포럼 해

외세미나 및 초청특강을 개최. 주제: <사할린 한인의 역사>

8월 4일-7일 -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아람지역협의회가 모집한 학생단(학생 19명, 인솔교사 3명)이 사할린한인역사탐방, 러시아문화탐방 등.

8월 4일-7일 - 한국 푸른아동청소년문화회 사할린 역사탐방단(작가18명, 단장 문영숙 회장)이 사할린을 방문. 6일 한인문화센터에서 동포들과의 간담회 개최.

8월 7일 - 사할린 영주귀국자 역방문 시작. 사할린 한인 1세 376명의 2018년 역방문에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지원.

8월 7일 - 11일 - 제4회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 캠프 열려.

8월 10일 - 본지에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호소문(주한인협회 명칭 관련) 게재.

8월 8일-12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청년 전문가들' 러시아기능올림픽 챔피언대회(World Skills Russia) 진행.

8월 11일 -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원 확대회의 소집. 사업보고와 함께 주한인협회 이름 변경, 사할린한국한인회와의 갈등 내용 등 논의.

8월 15일 - 광복절. 광복73주년 기념행사가 동포들이 사는 사할린주 내 곳곳에서 개최됨.

이날 마카로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음악단 단독공연 개최.

8월 1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주최한 광복절 행사 진행. 명절 공연에는 한국 국립국악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음악단, 사할린동포 아티스트들이 참가.

8월 19일 - 토마리에서 펼쳐진 광복절 행사장에서 한국 국립국악원 아티스트들이 공연.

8월 24일 - 31일간 - <세계의 끝> 사할린국제영화제 개최. 경연프로그램에 <회귀>(감독 최말레나) 한국영화 참가.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오정미 시나리오작가(한국) 초대참가.

8월 27일 - KIN 단체가 사할린 한국한인회와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의 추진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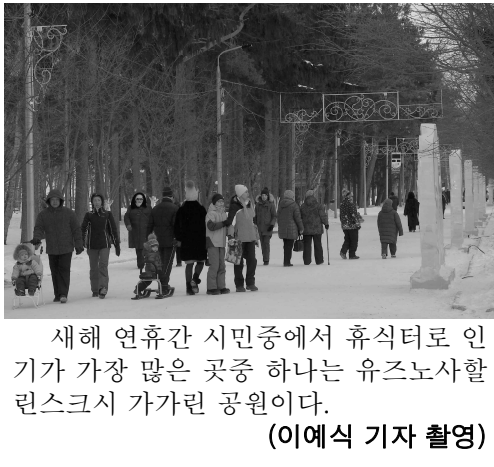
8월 28일 -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에서 환동해 문명사를 통해 본 영토문제로 러·한 국제학술세미나개최. (재)독도재단과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이 주최로 진행.

8월 3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특사원농장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식.

8월 31일 - 제25 회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희생자 추념행사 개최. 주최: 한국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 위령제 일환으로 제1회 공존 역사의 메아리 사할린 진혼제 <내 고향으로 가는 날>을 진행.

(다음 호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에서 즐거운 새해 연휴



새해 연휴간 시민중에서 휴식터로 인기가 가장 많은 곳중 하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새해전 한국 작가 찾아

12월 30일 오전 11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 뜻밖의 손님들이 들어섰다. 한국에서 온 어린이, 청소년문학 작가들이다. 이금이 작가를 비롯해 다섯 명의 작가는 다시 오게 되어 기쁘다며 노인정 어르신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들 작



가들은 2018년 8월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주최한 사할린 동포 1세대들과의 만남 이후 4개월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고 전했다.

이금이 작가는 "여름에 헤어지면서 어르신들 손잡고 말했어요.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말이 자꾸 목에 걸렸어요. 어르신들 모습이 눈에 밝히는 거예요. 괜한 약속을 했나 싶다가도 그분들에게 기다림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꼭 약속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죠."라며 다시 찾은 이유를 밝혔다.

작가들은 정성 담은 선물을 전달하며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었다. 고향 사투리에도 반가워 부둥켜 안아주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이곳 사할린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 자체가 잊혀진 역사의 기록이고 작가는 그들의 삶을 진실 되게 그려낸다는 책무가 있다며 돌아가면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묘신 작가는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부

르며 그분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립중환 회장은 우리 동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한국 정부에서도 동포 2세에게 열린 정책을 펴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생 이전의 동포들에게 영주 귀국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포 1세와 2세와의 또 다른 이산의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로 인해 부모 자식간이 생이별을 하는 처지에 놓인 동포들도 있음을 밝혔다. 동포 2세에 대한 탄력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바람도 밝혔다. 작가들은 춥고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우리 동포들이 있어 이곳 사할린이 더 애뜻하고 몽클하게 다가온다는 말을 남기며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본사 기자)

(사진 한국작가 대표단 제공)

사할린과 한국: 문화 및 교육을 통해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형성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학 한국어교수

(2018년 48호의 계속)

현재 사할린국립대학이 한국대학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대학생 교환프로그램이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교류를 주로 4개의 대학과 실시하여 한국어 어학 연수 (1학기, 2학기), 전문 실습 (경영 실습, 호텔서비스 및 바리스타 2주), 문화체험 프로그램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등이다.

사할린국립대학과 자매인 한국대학

	자매 대학명	자매 일자
1.	동서대학 (부산)	2003년
3.	부산외국어대학 (부산)	2008년
4.	제주관광대 (제주도)	2009년
5.	경주동국대 (경주)	2010년

25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내린 판단은 정의, 평화, 관용, 안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대학 간의 국제 교환 프로그램이 새로운 지식과 이해,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태도,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사할린국립대학 학생 30명과 자매인 한국대학의 교환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영역에서 의식이 높은 편이었다. 러시아 학생이나 한국 학생들은 유학을 다녀온 나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를 한 적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사할린에 사는 사람들이라 한인들하고 어릴 때부터 살고 있고 그들의 생활을 알고 있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연수를 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그 민족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학생들은 모든 한국사람들이 매운 음식과 K-POP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다. 반대로 한국학생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다 무뚝뚝하고 침울하다고 생각했고 어디서나 스킨헤드를 만날 수 있어서 무서워했다고 했다. 또는 러시아에서 인종 차별이 심하다고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전혀 그러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일부 러시아 학생들은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한민족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친절할 줄 몰랐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걸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착하고 동정심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모든 응답자들은 '러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의 같은 점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풍부한 감정, 열정, 애국심, 집단력, 손님 환대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빨리 친해지는 능력을 지적했다. 그리고 러-한 문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러시아 사람 성격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풍자와 스스로 자기를 비웃음을 꼽았다.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나라에 대한 긍지감을 느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답했다. 어떤 러시아 학생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그의 나라와 민족과 같은 점을 찾게 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새로운 성과와 성공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같이 기뻐한다고 했다.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두 나라를 응원한다고 했다.

한국 문화 (풍습, 관습 등)를 러시아 문화에 도입한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른들에 대한 배려, 적극적 사회활동, 부지런함, 꼼꼼함, 공손함, 친절함,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꼽았다. 반대로 러시아 문화를 한국 문화에 도입한다면 남의 의견에 신경을 안쓰는 것, 선후배 문화가 없는 것, 러시아의 손님환대라고 응답했다.

모든 응답자는 한국에 있는 동안 대부분 경우에는 자유로웠고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가끔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인종 차별을 느낀 적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친절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이 있더라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민족의 행실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한 행동을 전혀 느껴본 적 없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 와 있으면 각 나라가 자기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을 동의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상호문화 간의 높은 능력을 확인한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кончался Цой Мен Чер

29 декабря Москве на 69-м году жизни скончался основатель тхэквондо в России Цой Мен Чер.

Выпускник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инженер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ЛИСИ) институт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имени П.Ф. Лесгафта со студенческих лет занимался спортом. Был членом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Ленинграда по самбо. В 1982 и 1983 годах команда России по каратэ, в тренерский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ходил и Цой Мен Чер, становилась 2-х кратным чемпионом СССР.



В 1989 г. он создаёт федерацию тхэквондо СССР, а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Союз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издал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авила тхэквондо. Благодаря его усилиям в 1994 году тхэквондо удалось включить в программу Игр Доброй Вол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июне 2015 года был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овместных показате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тхэквондистов Севера и Юга Кореи в Твери, Москве, Приморье и на Сахалине.

Уроженец Сахалина (Корсаков) Цой Мен Чер являлся обладателем 8 дана по тхэквондо. Он хорошо зна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л с Куккивон (Академия тхэквонд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к и много лет подряд, для обу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ехали студенты из Пус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дна из таких студенток – Ли Мунджу, русские и иностранные друзья обычно называют ее Анной. Такое имя Ли Мунджу выбрала, начав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16 года.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сильно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поражают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 длинные русские слова. Много других языковых препятствий стоит на пути у Ли Мунджу, но, пытаясь преодолеть их, девушка пробует писать по-русски. Вот одно из ее первых эссе, названных «Мой Сахалин».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за такой пробой пера последуют и другие материалы, более совершенные по языку и по стилю. Ведь такой способ из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нелегкий, но надежный и перспективный.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Й САХАЛИН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Ли Мунджу, я студентка по обмену из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Мой институт находи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А сейчас я второй семестр учу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знакомые называют меня Анна.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это имя мне очень подходит.



2019 года встретиться с домом. Мои друзья, которые учились вместе со мной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ехал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 из Китая и Японии. Два семестра (а длились они, как мне показалось недолго) у меня были разные товарищи, все они оставили о себе веселые и памятные чувства. Я хочу встретиться с ними позже, если у меня будет такой шанс.

Мой Сахалин – это много нового опыта: в дружбе и в учебе. Я надеюсь, что мо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друзья, которых я встретила на острове, всегда будут здоровы и счастливы.

Ли Мунджу (Анна), студентк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사할린에 대한 소감

나는 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고, 현재는 사할린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문주(안나 리)이다. 나는 2018년도 2월에 1년동안 해외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위해 러시아의 사할린에 교환학생으로 왔다.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지만, 장기간 해외로 가는 것은 처음이라 매우 설렘했다. 2018년 2월 27일 처음 사할린에 도착했을 때, 폭설에 거리 어디든 눈으로 덮여 있어 깜짝 놀랐었다. 내가 살았던 부산이라는 곳은 눈은 정말 보기 힘든 곳이라서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3월부터 6월까지 1학기를 마치고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보낸 후에, 9월에 다시 사할린으로 왔다. 지금 나는 2학기도 거의 마치고, 마지막 시험을 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1년 동안 사할린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이곳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내가 사는 동안 잊지 못하고 생각날 것 같다. 모두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온 이문주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др.)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с 14 января 2019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11 февраля 2019г.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9:00 – 18:00

Обед: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Роман ХЕ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Избранное

Нота ЛЯ

1 том/



Светлая ночь

시조

II том/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11 января, 18:30

Проспект Мира, 83-А

Тел.для справок: +7(900) 431-77-97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извёл очеред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8 январ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назначил на пост главы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о Ён Мина, занимающего пост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итае. Он заменит на посту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м Чжон Сока. Главным секретарём президента по общим вопросам назначен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лава окруж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член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рег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Кан Ги Чжон. Главным секретарём президента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стал бывший комментатор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MBC Юн До Хан. Об этом 8 января сообщил Им Чжон Сок. Но Ён Мин, в связи с новым назначением, планировал вернуться из Китая 7 января, но отъезд был отложен в связи с прибытием в Пеки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Мун Чжэ Ин сменил главу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других важных постов спустя 20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начал формирование второго состава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о Ён Мин и Кан Ги Чжон являются соратниками Мун Чжэ Ина. Их назначение на ключевые посты,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связано со стремл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повысить управляемость госаппарата с целью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реформ.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второго сост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жида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об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Лидер КНДР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в 2019 году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Выступая утром 1 января с новогодним обращением к народу, которое транслирова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КНД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в 2019 году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Он сообщил также о своей готовности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иветствоваться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Ким Чон Ы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НДР будет вынуждена иск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курс, «если США неправильно истолкуют терпение, которое проявляет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в ожидании ответных шагов. Касаясь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им Чон Ын отметил готовность созд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чный пояс мира. Он назвал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проведен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рёх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Соглашение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Ким Чон Ын назвал фактической декларацией о ненападении. При этом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размеще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призвав Сеул не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с внешними силами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Ким Чон Ы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Кэсо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Он подтвердил твёрдое намерение КНДР выполнить обещания о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траны, отметив, что если США примут ответные меры, то процесс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ускорит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назвал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страны в 2019 году.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ции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энергетик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т занятости в РК в 2018 году – самый низкий за 10 лет

По итогам 2018 год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занятого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авило 26 млн 82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97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Данный рост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низким с 2009 года, когда страна переживала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оставил 60,7%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кратившись за прошлый год на 0,1%. Безработными были 1 млн 73 тыс. человек – 3,8%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2000 года. Безработица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до 30 лет составила 8,6%, сократившись на 0,6%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7 годом. Только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сократилось на 127 тыс., а в сфере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на 63 тыс.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оздано 154 тыс., а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94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RKI)

Си Цзиньпин и Ким Чон Ын про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в Пекине

8 января в Пекине состоя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нимающая сторона устроила в честь гостя из КНДР торжественный ужин по случаю его дня рождения. 8 января Ким Чон Ыну исполнилось 35 лет.

Напомним, спецпоезд с Ким Чон Ыном, которого сопровождали жена Ли Соль Чжу и ря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прибыл в Пекин 8 января утром. Визит продлился до 9 января. Это уже четвертая поездка Ким Чон Ына в Китай за время е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лидера КНДР.

Общение двух лидеров длилось примерно один час. Подробно о содержании консультаций ни Пекин, ни Пхеньян официально не

рассказывают, но, как предполагали в Сеуле,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две темы: приближающийс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и все связанные с ним вопросы, а также проблематика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предполож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Си Цзиньпин и Ким Чон Ын ничего лично не согласовывали, так как обо всем у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подчиненные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поэтому лидеры завершили переговоры за один час. Ким и Си подтвердили то, что согласовали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эксперты, обменялись некоторыми фразами и поспешили на торжественный ужин, устроенный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ой в честь приезда Кима. На ужине к Си и Ким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уже их супруги.

В этот раз ужин носил особый характер.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70-летний юбилей со дня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НР и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8 января Ким Чон Ыну исполнилось 35 лет, а потому ужин превратился еще и в своего рода праздничную вечеринку. Как сообщили некоторые источники, кита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старалась устроить все с особым шиком и торжественностью.

Отмети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о факт визита Ким Чон Ына в Китай, заявив, что эта поездк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также по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ддержанию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0,3% южнокорейцев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Юга и Севера

60,3% южнокорейцев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Юга и Севера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ей KBS с 21 по 2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и 1079 человек старше 19 лет. 30,4%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отношения останутся на том же уровне, что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9,3% выразили мнение, что они ухудшатся. 49,7%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Север можно назвать объект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9,6% считают, что с Севером лучше соблюдать дистанцию, 10,6% назвали его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последние два варианта называли мужчин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тарше 60 лет. Также был задан

вопрос о том, окажет ли какое-либо влияние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РК межкорейск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т 19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о прекращении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в том числе демилитаризация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JSA), демонтаж постов охраны в ДМЗ и другие меры. Семь из десяти 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что это окаж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Среди самых неотложных задач в рамках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44,1% назвали проведение встреч раздельных семей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Далее следуют проект соединения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работы Кэсо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KBS WORLD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оплата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mail: Ase65@bk.ru
https://vk.com/ase_sr
 ☎ 8962 154 88 65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убботам: с 14:00 до 16:00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обязательна)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Z³»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вотсап:
+ 7 962 154 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2019년

기 해 년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7 2	14 9	21 16	28 23			4 30	11 7	18 14	25 21		4 28	11 5	18 12	25 19
화	1 11.26	8 3	15 10	22 17	29 24			5 1.1	12 8	19 15	26 22		5 29	12 6	19 13	26 20
수	2 27	9 4	16 11	23 18	30 25			6 2	13 9	20 16	27 23		6 30	13 7	20 14	27 21
목	3 28	10 5	17 12	24 19	31 26			7 3	14 10	21 17	28 24		7 2.1	14 8	21 15	28 22
금	4 29	11 6	18 13	25 20		1 12.27	8 4	15 11	22 18			1 1.25	8 2	15 9	22 16	29 23
토	5 30	12 7	19 14	26 21			2 28	9 5	16 12	23 19		2 26	9 3	16 10	23 17	30 24
일	6 12.1	13 8	20 15	27 22			3 29	10 6	17 13	24 20		3 27	10 4	17 11	24 18	31 25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1 2.26	8 4	15 11	22 18	29 25			6 2	13 9	20 16	27 23		3 5.1	10 8	17 15	24 22
화	2 27	9 5	16 12	23 19	30 26			7 3	14 10	21 17	28 24		4 2	11 9	18 16	25 23
수	3 28	10 6	17 13	24 20		1 3.27	8 4	15 11	22 18	29 25		5 3	12 10	19 17	26 24	
목	4 29	11 7	18 14	25 21			2 28	9 5	16 12	23 19	30 26		6 4	13 11	20 18	27 25
금	5 3.1	12 8	19 15	26 22			3 29	10 6	17 13	24 20	31 27		7 5	14 12	21 19	28 26
토	6 2	13 9	20 16	27 23			4 30	11 7	18 14	25 21		1 4.28	8 6	15 13	22 20	29 27
일	7 3	14 10	21 17	28 24			5 4.1	12 8	19 15	26 22		2 29	9 7	16 14	23 21	30 28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7-8월					9월 음력 8-9월				
월	1 5.29	8 6	15 13	22 20	29 27		5 5	12 12	19 19	26 26		2 4	9 11	16 18	23 25	30 2
화	2 30	9 7	16 14	23 21	30 28		6 6	13 13	20 20	27 27		3 5	10 12	17 19	24 26	
수	3 6.1	10 8	17 15	24 22	31 29		7 7	14 14	21 21	28 28		4 6	11 13	18 20	25 27	
목	4 2	11 9	18 16	25 23		1 7.1	8 8	15 15	22 22	29 29		5 7	12 14	19 21	26 28	
금	5 3	12 10	19 17	26 24		2 2	9 9	16 16	23 23	30 8.1		6 8	13 15	20 22	27 29	
토	6 4	13 11	20 18	27 25		3 3	10 10	17 17	24 24	31 2		7 9	14 16	21 23	28 30	
일	7 5	14 12	21 19	28 26		4 4	11 11	18 18	25 25		1 8.3	8 10	15 17	22 24	29 9.1	
		10월 음력 9-10월					11월 음력 10-11월					12월 음력 11-12월				
월		7 9	14 16	21 23	28 10.1		4 8	11 15	18 22	25 29		2 6	9 13	16 20	23 27	30 5
화	1 9.3	8 10	15 17	22 24	29 2		5 9	12 16	19 23	26 30		3 7	10 14	17 21	24 28	31 6
수	2 4	9 11	16 18	23 25	30 3		6 10	13 17	20 24	27 11.1		4 8	11 15	18 22	25 29	
목	3 5	10 12	17 19	24 26	31 4		7 11	14 18	21 25	28 2		5 9	12 16	19 23	26 12.1	
금	4 6	11 13	18 20	25 27		1 10.5	8 12	15 19	22 26	29 3		6 10	13 17	20 24	27 2	
토	5 7	12 14	19 21	26 28		2 6	9 13	16 20	23 27	30 4		7 11	14 18	21 25	28 3	
일	6 8	13 15	20 22	27 29		3 7	10 14	17 21	24 28		1 11.5	8 12	15 19	22 26	29 4	

- 음력설 2.5
- 한식 4.6
- 단오 6.7
- 초복 7.12
- 중복 7.22
- 말복 8.11
- 추석 9.13
- 성탄절 12.25



절기

(양력)

소대입우경춘청곡입소망하소대입처백추한상입소대동
 한한춘수칩분명우하만중지서서추서로분로강동설설지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6 20 4 19 6 21 5 20 6 21 6 22 7 23 8 23 8 23 8 24 8 22 7 22



[특별기고] **다시 부르는 3월의 노래**
'3·1 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태동시킨 혁명
 일제로부터의 독립·황제 주권을 인민에게...
 1948년 민주공화정의 출발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2019년 올해는 역사적, 정치적, 법적으로 각별한 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국민과 헌법이 탄생한 지 한세기를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 임시정부 100년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다음 세기의 비전을 채워갈 시기입니다.

100주년이라면 떠들썩한 불꽃놀이와 기념행사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3·1절을 맞으면 그저 빨간 공휴일로 여기진 않는지요. 새해를 맞아 그 시대적 의미를 찬찬히 짚어보면 어떨까요.

왜 3·1혁명인가

우리의 헌법 전문(前文)에서 출발해 볼까요.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 현행 헌법까지 아홉 차례나 바뀌지만, 전문에서 "3·1운동"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3·1운동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1910년 대한제국이 마침내 망하고, 한국은 일본제국의 한 부분인 '식민지 조선'으로 편입됩니다. 실질 통치권은 조선총독부의 수중에 놓입니다. 헌병·군사 강점 하에 놓인 국내에서는 국권회복운동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1차 대전의 승전국이 됨으로써, 그 지배력은 더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독립선언의 불꽃이 기적처럼 점화됩니다. 만주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가, 적의 심장부인 도쿄에서는 2·8학생독립선언이 터져나옵니다. 해외와 국내 간의 긴밀한 연락에 이어 마침내 1919년 3월1일에 이르러 서울 한복판에서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대한독립만세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한반도는 우리 역사상 가장



1919년 3.1운동 당시 경성 종로에서 부녀자들끼리 길거리로 뛰어나와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 장대한 거국적 항쟁의 물결과 희생의 피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1915년에 박은식 선생은 망명지인 중국 땅에서 '한국통사'를 써냈습니다. 망국에 이르게 되는 눈물의 아픈 역사이기에 '통사(痛史)'입니다. 그는 눈물 다음에는 피의 항쟁이 뒤따를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4년 뒤 그 피흘림의 투쟁사가 3·1운동입니다. 해외에서 선생은 그 사실을 '조선독립운동지혈사'로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고난과 피흘림은 곧 광복사의 토대입니다. 3·1운동에 대해 혈사(血史)는 이렇게 압축합니다.

"드디어 기미년 3월 1일, 우리의 태극기가 돌연히 하늘에 휘날리어 해외 달과 더불어 광채를 다투고, 독립 만세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우리 남녀노소가 흘린 피가 길에 가득하였지만 용기는 더욱 충천하고, 기세는 한층 장

렬하였다. 국내외의 보잘 것 없는 외딴 시골 구석에서도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만세를 외쳐 부르짖지 않음이 없었고 앞다투어 목숨을 바쳤다. 충정과 믿음을 감주로 삼을 뿐, 손에는 한 치의 무기도 들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3·1은 무엇보다도 독립선언일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일이 7월 4일이라면, 한국의 독립선언일은 3월1일입니다. 3·1운동은 모든 한국인들이 두루 참여한 운동입니다. 시위자는 한국인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인 200만을 넘었습니다. 전국 각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만세를 불렀고, 한국인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제의 학살로 죽어간 한국인들이 2만여 명을 헤아리니, 부상자는 훨씬 많았을 것이고, 감옥살이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습니다. (계속)

(출처: 한국일보, 2019.01.02)

김경협 의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1,496달러"
지난해 국민총소득과 달러화 환율 평균자료 등 분석결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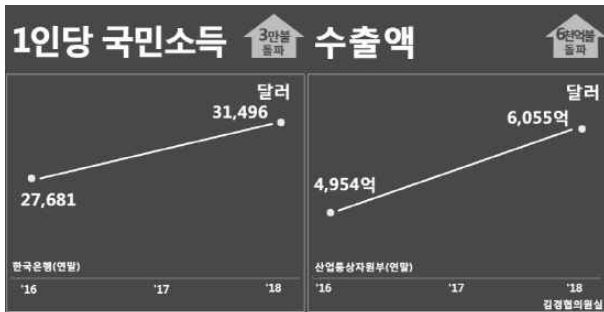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은 지난해 분기별 국민총소득 및 전년 동기 대비 달러화 환율 평균자료(1100.3원)와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중위추계(5163만 5256명) 등을 종합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496달러로 추정된다고 1월 3일 밝혔다.

김 의원의 추정대로라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명 이상 규모 국가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 반열에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등이 단기 경제지표만을 분석해 '경제 빙하기',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파탄났다' 등 표현을 쓰며 한국경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난해를 분석한 결과 주요 경제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1인당 국민소득 : 3만 불 돌파
 1인당 국민소득(달러) : 27,681('16말)→ 29,745('17말)



→ 31,496('18년추정) *출처 : 한국은행, 의원실
 ▲ 수출액 : 6,000억 불 돌파
 ○ 수출액(억불) : 4,954('16) → 5,736('17) → 6,055('18)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연말기준)
 ▲ 선박 수주 : 7년만에 세계1위(42%) 탈환
 ○ 수주량(CGT) : 220만('16말) → 640만('17말) → 1,090만('18.11) *출처 : Clarksons Research
 ○ 수주금액(억불) : 44('16) → 173('17) → 218('18.11)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연말기준)
 ▲ 해외건설 수주 : 3년만에 300억불 넘어
 ○ 수주액(억불) : 82('16) → 290('17) → 321('18) * 출처 : 해외건설협회 (연말기준)
 (출처: 재외동포신문, 2019.01.04)

[우리말로 깨달다]

새해에는 재미있게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재미'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어른의 말씀에서 재미를 '자미'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미가 좋든지, 자미있게 놀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재미'와 '재미있게'를 달린 것이겠죠. 저는 자미가 재미의 사투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의 어원을 찾으려면 자미와의 관계부터 살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미를 찾으면 한자어가 등장합니다. 즉, 자미(滋味)는 '재미의 잘못'이라고 나옵니다. 재미가 자미에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재미를 자미라고 하면 틀린다는 해석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재미는 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자어 자미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미는 '영양분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맛이 있다는 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興味)도 비슷하죠. 흥미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맛입니다. 재미와 흥미는 모두 맛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는 재미라고도 하고, 사는 맛이라고도 합니다. 재미가 맛의 의미로도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을 '살다, 보내다, 지내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에는 즐거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고, 보내는 것은 떠나게 하는 것이고, 지내는 것은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하면 사는 재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은 사는 재미를 느끼라는 말이 아닐까요?

재미가 어원적으로 맛과 관련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을 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도 있지만, 단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맛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맛만 좋은 것인 줄 알고 단맛을 찾지만 쓴맛도 맛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쓴맛도 익숙해지면 맛있습니. 오히려 단맛보다 쓴맛이 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겠냐고 물으면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서 고생이라고 하지만, 힘든 일이 주는 쾌감도 있습니다. 일부터 놓고 힘든 산을 찾아 오릅니다.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라는 싱거운 말을 하면서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42.195 킬로미터를 뛸니다. '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쓴맛도 맛있는 겁니다.

맛은 다양합니다. 음식마다 다릅니다. 단맛도 하나가 아닙니다. 달달하고, 달콤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달아서 별로일 때도 있죠. 쓴맛도 하나가 아닙니다. 짠맛, 신맛, 매운맛도 하나가 아닙니다. 음식에 따라 감칠맛이 나기도 하고, 얼얼한 맛이 나기도 합니다. 과일의 단맛이 다르고, 밥의 단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과일도 먹겠죠. 모든 맛이 같다면 여러 가지를 맛보고 경험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사는 재미가 없다는 말을 사는 낙이 없다고도 합니다. '낙(樂)'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재미가 없다는 말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사실일 겁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말초적인 즐거움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야 하니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겠죠. 자미(滋味)라는 말에서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양분이 많은 음식은 즐거움이 될 겁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배울 일이 많은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물론 배우는 게 싫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을 배우기 때문일 겁니다.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 재미있습니다.

저는 재미라는 말에서 다양성을 봅니다. 어린 시절의 재미와 나이가 들어서의 재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자라게 하는 재미와 육체를 유지하는 재미가 다릅니다. 배우는 재미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재미가 있어야 낙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일은 찾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재미에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도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이왕이면 살맛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재미있게 지내세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새해 방학기간에 сахалин주에서 신생아 117명 탄생

2019년 첫 주간에 сахалин주 내 산부인과 병동과 조산센터에서 여아 47명과 남아 70명이 태어났다. 전년 같은 시기에 сахалин주에는 신생아 111명이 탄생했다.

2018년에는 신생아 총 6043명(남아 3123명과 여아 2920)이 태어났다. 새해에 첫 신생아 탄생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밤 12시를 넘긴 40분이 지나서 주 조산센터에서 남아가 탄생했다.

В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дилось 117 детей

В первые восемь дней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их родильных домах и региональном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47 девочек и 70 мальчиков. Для сравнения — годом ранее за этот же временной промежуток на островах родилось 111 детей.

Всего в 2018 году на свет появились 6043 ребенка — 3123 мальчика и 2920 девочки. А в новом году первые роды приним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рез 40 мину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обили куранты, в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родился мальчик.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설날을 알리다

1월 5일 сахалин주 미술박물관에서 "설날을 기다리며"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 가운데 방문객들에게 음력 달력에 따른 한국의 새해 축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강연 중 아동 전통명절 의상, 연, 전통 가면 등 박물관 소장품을 가지고 시연했다. 방문객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сахалин국립대 임 엘비라 한국어학과 교수의 지도로 활동교실이 펼쳐져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한지로 한지등을 만들었다.

이날 미술박물관 방문객들은 한지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

Сахалинцам рассказали о Соллал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5 января провели лекцию «В ожидании Соллаль». Гостям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аздно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музея Ольга Хай сообщила, в этом году Соллаль будут отмечать 5 февраля. На лекции в музее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про обряды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Во время лекции посетителя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экспонаты музейного фонда: детский праздничный корейский костюм, воздушный змей, театральные маски. Настоящим сюрпризом для гостей музея ста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ГУ Эльвиры Лим.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из специальной бумаг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ханчжи» изготовили бумажные фонарики.

Каждый, кто пришел в этот день в музей, полу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взять такой фонарик себе в подарок.

열흘 스포츠 행사에 сахалин 주민 8000여명 참가

12월 25일 сахалин주에서 전통 열흘 스포츠 행사가 시작되어 1월 8일에 막을내렸다.

이 기간 열흘 행사에 10개 이상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сахалин 주민들은 추위할아버지들의 대대적인 스키 하강, 눈과 새해 행사, 주 선수권대회와 챔피언 대회에도 참가했다. 스포츠 행사의 큰 부분은 1월에 진행되어 미니 축구, 배구, 체스, 테니스 경기가 펼쳐졌다. 또한 각 지방에서 대중적인 스케이트장들이 개장했다.

크로스컨트리와 명절에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였다. 이 종목의 경기는 아니와 돌린스크, 오하 구역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개최되었고 토마리시에서는 알파인 스키 сахалин주배(컵) 경기가 진행되었다.

섬지역에서 열흘 스포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들에 주민들 8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сахалин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В декаде спорт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семь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Традиционная декада спорта стартова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5 декабря, а закончилась 8 января. За это врем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вели десятки меро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ц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массовом спуске Дедов Морозов, снежных и новогодних стартах, а также первенствах и чемпионатах области.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ели в январе. Островитяне состязались в турнирах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волейболу, шахматам и теннису. Также в районах работали точки массового катания на коньках.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праздники стали лыжные гонк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в Томари состоялся этап кубка област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Всего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декаде 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ьше восьми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제 63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19. 4. 21(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4. 장소 및 시행처 : сахалин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9. 1.14 ~ 2019. 1.30

나. 교부 장소 : сахалин한국교육원,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전화: 505696

6. 응시 수수료 : 500루블, 사진 2매 (3*4)

7. 시험결과 발표 : 2019. 5.30 이후

(сахалин한국교육원 제공)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